

강원도 도시재생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 충남도, 충남발전연구원, 14개 참여대학, 기업체대표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단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18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도시재생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춘천시 공무원, 춘천시 의원, 교수 및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송상열 박사(한호건설(주) 전략기획사업단)는 ‘지방중소도시의 쇠퇴 실태 분석과 강원도 도시 제언’을 통해 지방도시의 낙후원인과 그 결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상호작용으로 비롯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주식 과장(춘천시 주택행정과)은 ‘춘천시의 도시재정비 실태와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춘천시의 구도심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김영기 박사(중소기업청)는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일본의 시가지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도 이석권 교수(강원대 건축학부), 정성훈 교수(강원대 지리교육학과), 이재수 의원(춘천시 의회), 김중기 과장(춘천시 건축과), 추용욱 박사(강원발전연구원)의 토론을 통해 △충분한 사전 조사와 도시의 특성, 개성을 찾아 계획수립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주도의 개발계획 수립은 지양 △대규모 선도적 개발추진 (랜드마크 - 활성화의 촉매제로 활용) △복합적인 기능의 다양화 (축제, 레저, 문화, 상업 등) △문화유산 및 역사경관의 보존과 활용해야만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조봉운 책임연구원은 '강원도, 충청남도 등 지방의 중소도시의 쇠퇴특성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문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방안은 시도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며 시도연구원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다.